



## 쿠바, 설탕輸出 擴大

쿠바는 지난 10여년간 계속된 對共產國, 특히 소련과의 對外去來集中 傾向으로부터 점차 西方國과의 貨易去來擴大 傾向으로 轉向함에 따라 主生産品인 설탕의 輸出을 擴大할 것이라고 美農務省이 發表했다.

쿠바는 지난해 日本에 약 4억 7,500만달러 상당의 설탕을 輸出한데 이어 現在 長期 설탕 供給契約締結問題를 協議中에 있으며 또한 캐

나다에 대한 輸出도 前年の 2배에 가까운 20만톤 규모로 擴大할 계획이다.

## 코피 최저價格制 실시 合意

國際코피機構(ICO) 산하 生産國들은 코피 消費國들과의 제 3차 國際코피協定에 관한 協商에 앞서 生産國질락회의를 끝내고 코피輸出 코터와 最低價格制 및 備蓄在庫의 設치등에 대해 합의했다.

브라질, 콜롬비아대표단의 代변인은 이번 生産國회의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말하고 輸出코터에 관해서는 보다 彈力的으로 運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最低價格制에 관해서는 그 채택必要性을 모든 국가에 인정했으나 일부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側이 제안한 60센트線을 3센트가량 向上策定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代변인은 또한 1천만袋 가량의 備蓄제고를 設치해야 한다는데에도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으나 일부 국가들은 그 財源調達에 消費國들도 협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ICO산하 42개 코피生産國과 21개消費國들은 런던에서 오는 9월30일 만료되는 제 2차 協定을 代替할 제 3차協定을 마련하기 위한 제 5차 會議를 개최한다.

## 農産物 2百 億弗 수출 추정

75년 6월 30일로 끝나는 FY75 美農産物 수출 총액은 2백 20억달러로 FY74의 기록적 수출액인 2백 13억달러 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美國사료곡물협회에 의하면 美國의 농산물 輸出은 전년 보다 12억달러가 늘어난 1백 7억 달러이지만 농산물 무역흑자는 1백 1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멕시코, 설탕 輸出을 중단

멕시코는 국제 시장에서 설탕값이 오를때까지 설탕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프란시스코·카노·에스카란테 멕시코설탕위원회 회장은 멕시코가 현재와 같은 낮은 값으로 설탕을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 시장의 설탕값은 지난해 11월 파운드당 65센트까지 기록적인 상승을 보인적도 있으나 지난 여러달 동안 설탕값은 파운드당 18센트까지 떨어졌다.

카노·에스카란테 회장은 「우리는 파운드당 25~30센트 이하선에서 설탕을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의 설탕 생산량은 지난해 2백 80만톤이었으며 그중 20%는 대부분 美國등 외국에 수출했다고 그가 밝혔다.

### 설탕 國際價 계속 폭락

런던 日間雪糖가액(LDP)은 L/T當 1백 95파운드(파운드當 20·5센트)로 10파운드 떨어져 최근 15개월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LDP는 지난 1월 30일의 1백 98파운드이레 이번이 처음으로 2백파운드線을 밑돌았는데 전문가들은 악천후로 유럽 사탕무우農事에 타격이 초래되거나 바이러스·엘로病이 다시 만연되거나 혹은 이번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한 이러한 설탕가액의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印度, 中共, 韓國, 日本 및 유럽 生産업자들이 아직도 賣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최소한 短期用으로는 설탕가액은 계속 하락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景氣 회복과 함께 설탕 수요도 다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반면 각국은 植村면적을 억제하며 製糖시설은 포화가동상태에 있으므로 새로운 설탕 파동을 막으려던 새로운 投資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전문가들은 말했다.

현재의 설탕가액 下落勢는 전반적인 原資材가액의 내림세와 최근까지의 高雪糖가액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 및 在庫累增에 기인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 大豆 4百40萬噸 輸出

美農務省발표에 따르면 6년에 브라질產 大豆의 수출추정량은 4백40만톤으로 작년의 2백 80만톤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美國產 大豆에 대한 브라질產 大豆의 수출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美國의 옥수수植付作業은 그 진도율이 불과 13%로 前年同期對比59%나 下廻하고 있다.

또한 中西部 및 서부지역에서는 降雨로 인해 정지작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의 요인이 되고있다.

그런데 이집트는 옥수수 16만톤의 入札을 예정하고 있고 키프로스도 구매에 나설 전망이다.